

# 민주, 재보선 총력 체제 전환... 매머드급 선대위 구성

### 이낙연·김태년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추, 대권주자 입증 시험무대 노동·청년·가짜뉴스 대책 등 분야별 본부 구성...“정책으로 승부”

더불어민주당은 3일 4·7 재보선 중앙당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들어갔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등을 뽑는 이번 재보선은 '미리보는 대선'으로 평가되면서 민주당이 매머드급 선대위를 꾸렸다. 특히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아 선거를 총괄 지휘할 예정이어서 이 대표의 '대권주자'로서의 가치를 입증하는 본격적인 시험무대도 시작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이제 당은 본격적인 선거 체제로 진입한다. 당의 모든 역량을 후보자 지원과 지역 발전 공약 수립 등 선거 지원에 총동원할 것이다"면서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국민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그리고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당원 모두가 앞으로 남은 35일 동안 총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선 전초전 격인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승리를 위해 당의 모든 인적, 물적 역량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선대위 구성 방안을 의결했다. 공동 선대위원장은 김종민·염태영·노웅래·신동근·양행자·박홍배·박성민 등 최

고위원 전원과 기동민 서울시장 위원장, 박재호 부산시장 위원장, 박정 경기도당 위원장(서울 선거지원단장), 김정호 의원(부산 선거지원단장) 등 11명이 이름을 올렸다.

선거대책본부장은 박광운 사무총장이, 정책비전 본부장은 홍익표 정책위의장, 선거지원본부장은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종합상황실장 겸 전략본부장은 정태호 전략기획위원장이 각각 맡는다. 홍보, 노동, 직능, 여성, 청년, 유세, 가짜뉴스 대책 등 분야별 본부를 구성하고, 기존의 당내 각종 위원회도 선대위에 결합했다.

시도별 선거지원단도 구성됐다. 지원단장은 사도당 위원장이, 부단장은 광역의회 의장단이 맡고 광역·기초의원이 단원으로 참여한다.

이날 김태년 원내대표는 "야당이 선거를 앞두고 정부에 어떤 민생지원도 하지 말라는 정치공세야말로, 선거용 국정발목잡기이며 고질적인 국정방해 행위이다. 국민이 있어야 선거가 있다"면서 "야당은 선거가 먼저인지 몰라도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민생이 우선이다"고 주장했다. 또 "야당이 국민이 고통을 받든 말든 오직 기승전 선거에만



더불어민주당 이낙연(왼쪽)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목을 매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우선의 민생정책을 일관되게 밀고 가겠다"고 덧붙였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후보가 정해진 만큼 우리 민

당은 원팀 정신으로 똘똘 뭉쳐 천만 서울시민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 현재 야당은 민생은 뒷전인 채 오로지 정권심판론만 꺼내들고 있다"면서 "지금 서

울에 필요한 것은 불만만 많은 '프로 불편러'가 아닌 민생 전문가이다. 민주당은 정적으로 승부하겠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

## 민주 "윤석열 언행, 공직자로 부적절"

### 검찰 수사권 폐지 반대 우회 비판...검찰개혁법, 속도조절 시사

더불어민주당은 3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개적으로 여론의 '검찰 수사권 폐지'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최근 윤 총장의 언론 인터뷰와 관련해 '검찰총장 언행이 좀 요란스러워서 우려스럽다는 시각이 있다'며 '좀 차분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검찰개혁 이슈 자체로 각을 세우기보다는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지적하며 윤 총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윤 총장과 관련한 공개

발언은 나오지 않았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 국면에서 수위 높은 비판 발언이 잇따른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낙연 대표 역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총장 발언에 대해 "특별히 할 말이 없다"며 "검찰개혁 관련 의견이라면 법무부 통해서도 제시할 수 있다"고만 언급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 특위가 법무부를 포함한 여러 분야의 의견을 들어 완성도 높은 법안을 준비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재보선을 앞둔 시점에 자칫 여론과 검찰의 갈등 양상이 재현될까 우려하며 확전을 자제

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당 검찰개혁 특위 내부적으로도 입법 과정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당초 이달로 예정했던 법안 발의 시기가 4월 재보선 뒤로 미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최 수석대변인은 "검찰개혁은 확고하게 추진할 것"이라면서도 "오늘 회의에서는 검찰개혁을 차분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기초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개혁 법안 발의 시점에 대해 "검찰개혁 특위의 결과를 지켜보고 있고, 특별히 선거를 의식해 시점을 조율하고 있지는 않다"며 "조을 기간이 좀 길다보면 선거 뒤에 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들이 보기에 '정치싸움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지 않게 실질적 쟁점에 대해서 차분하게 토론해서 입법 과정이 충실하게 진행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 김종민·안철수, 단일화를 대치

### 김종민 "여론조사, 기호 넣어 질문"...안철수 "유불리 따지면 선거 쳐"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후보 단일화의 구체적 방식을 놓고 국민의힘 김종민 비상대책위원장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3일 잇따라 이견을 표출하며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국민의힘 후보가 정해지는 4일부터 당장 단일화 협상이 시작될 수 있기에 이에 앞서 최대한 유리한 지형을 만들고자 포석에 들어간 셈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야권 단일 후보가 국민의힘 기호인 2번이어야 한다는 자신의 주장과 관련해 "(안 후보가) 기호 4번을 주장하면, 기호 4번과 기호 2번의 후보를 놓고서 일반 시민에게 물어보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단일화 여론조사를 할 때 '기호 2번 ○○○', '기호 4번 안철수'와 같은 형태로 후보

자 이름 앞에 기호를 붙여 묻자는 제안이다.

전날 "국민의당 기호 4번을 가지고 선거에서 이기겠다고 확신할 수 있느냐. 나는 그런 확신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야권 단일후보의 기호 2번 출마를 주장한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셈이다.

이에 대해 안 후보는 중도층의 지지를 결집하는 데 기호 2번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기호 2번을 달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는데 그 악마는 각자의 유불리를 따지는 데서 나온다"며 "사람들이 보기에 합리적이기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은 방식이 나오게 되면, 누가 이기더라도 힘을 결집하기 어렵고 선거에서 질 것"이라 경고했다. /연합뉴스

## "범여, 10일까지 서울시장 후보 결정돼야"

### 민주당, 김진애 의원직 사퇴 배수진에 "장시간 줄다리기 안돼" 강경

열린민주당 김진애 서울시장 후보의 '국회의원직 사퇴' 배수진에 더불어민주당이 강경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당 지도부의 한 인사는 3일 통화에서 "후보가 단일화에 발목 잡혀선 안 된다"며 "열린민주당 주장대로 하면 앞으로 2주간 유동적인 상태가 이어지는데, 선거운동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협상을 책임지고 있는 김종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늦어도 10일까지는 최종

후보가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MBC 라디오에서 "절박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단일화에 너무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은 시민에게 도리가 아니다"라고 했다. 범여권 후보 단일화의 절박성은 인정하지만 김 후보와 장기간 줄다리기를 거듭하느니 박영선 후보의 선거전에 일찌감치 치중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 깔린 셈이다.

혼전이 예상되는 만큼, 선거를 앞두고 범여권 지지층이 결속하면 김 후보로 나뉘었던 일부 친문 표

심이 자연스럽게 박 후보로 몰릴 것이라는 내심의 기대도 일한다.

굳이 자세를 낮추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김 후보를 향한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불리할 게 없다는 현실적 셈법이다.

정치권에서는 김 후보의 국회의원직 사퇴시 열린 민주당에서 의원직을 승계받게 될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총선 때 '흑석동 부동산'으로 여론의 비난을 받았던 점도 민주당 입장에서 끌림이 없지 않다는 말도 나온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그러나 양당간 단일화 협상이 잠정 중단됐다는 일부 관측에 대해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지만 계속 대화 중"이라고 부인했다. /연합뉴스

## '김학의 출금 사건' 공수처로 이첩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금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운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등 현직 검사 사건을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 중이던 김 전 차관 출금 사건에 대해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공수처법 25조 2항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한다'는 규정에 근거해 이번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공수처가 아직 수사 인력을 갖추지 못한 점 등 현실적 한계를 고려할 때 넘겨받은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재이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검찰 안팎의 의견이다. /연합뉴스

##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010-2860-4700, 직통전화 062)521-4109

## 오피스텔, 신축부지

- ▶ 동구 대인동 롯데백화점 근처
- ▶ 대지 515㎡(구. 156평), 중심상업지역
- ▶ 오피스텔 허가 득, 타용도 변경 가능
- 지하1층, 지상9층, 64호실, 47㎡(구. 14평)
- ▶ PF 28억 확정, 지하 1층 공사 중
- ▶ 매매 - 20억(토지 17억 + 공사비 3억)

문의. 010-3605-5000